

## 李退溪 應變의 道\*\*

謝 寶 森\*

• 目 次 •

I. 災異譴告, 恐懼修省  
II. 亢龍有悔 居安慮危

III. 消除更化 臻于治平

퇴계는 필생의 정력을 기울여 天道와 人事의 규율을 탐구하였다. 인간과 사물의 변화 생성이나, 정치의 치란, 길흉과 화복 등이 모두 그가 관심을 기울인 문제였다.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위하여 天災와 人禍, 內優와 外患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여 돌변하는 사태를 예방하느냐 하는 것이 퇴계사상 가운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퇴계의 ‘어지럽기 전에 잘 다스리고, 위태하기 전에 나라를 보위한다’는 생각은 정치가로서의 深謀遠慮와 사상가로서의 날카롭고 신중한 변증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의 상당한 견해는 오늘날에도 거울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그의 변화 적응의도, 즉 應變之道에 있어서의 이론과 방법을 중심으로 그의 이론 가운데 중요한 것을 인용하고 요점을 탐색·검토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浙江사회과학원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75·76호(1992) 게재논문

## I. 災異譴告, 恐懼修省

퇴계는 그의 저명한 施政綱領인 《戊辰六條疏》에서 宣祖에게 다음과 같이 啓奏하였다.

董仲舒가 漢武帝에게 말하기를 “국가에 장차 失道の 敗績이 있으면 하늘은 미리 재해로써 경계합니다. 자성할 줄 모르면 다시 괴이한 것으로써 경고합니다. 그래도 변통을 모르면 傷敗가 이르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러한 것으로써 인군에 대한 仁愛를 보여주며 患亂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니다.

퇴계는 동중서의 災異譴告說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는 임금이라면 반드시 萬世人主의 귀감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진실한 태도로써 災異에 대처하여야 하며 결코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나라를 다스리는 六大綱目的 하나로 열거하여 왕에게 이러한 도리를 지킬 것을 권고하였으며 임금은 “하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까닭에서 인가를 알아야 하며 내가 어떻게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깊이 생각하고 이를 실행하여야만이 하늘의 사랑을 향유할 수 있고 임금의 도리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퇴계는 ‘災異譴告說’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 논증을 통해 그 뜻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첫째 體天之愛, 즉 하늘의 사랑을 체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계는 천지가 만물을 化育·生長시키고 사람을 만든 것이야말로 天心の 仁愛를 체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는 仁愛의 마음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그 권능을 성현에게 맡겨 그가 통치자가 되어 백성을 다스리고 仁政을 행하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퇴계는 君權天授, 즉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고 인정을 시행하는 것은 모두 천의에 속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군주가 나태하여 직무에 태만하여 하늘이 災異로써 임금에게 경고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祥瑞로써 임금을 贊賞하는데, 이 모두가 하늘의 인애의 표현이며 그 방법

은 ‘반복해서 알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퇴계는 임금의 이러한 도리를 깨달아야만 하늘의 명령은 어길 수 없으며 속일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畏天之威, 즉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계는 天道가 걱정할 것 없고 天威가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늘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른바 天威는 災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천위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禍敗를 당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퇴계는 당시에 발생한 災異의 현상은 임금이 이미 하늘의 노여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宣祖에게 “董仲舒의 말로써 미루어 생각해보면 이는 바로 천심이 전하를 깊이 사랑하여 임금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라 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도리를 생각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생각하는 임금에 있어 만약 하늘이 내리는 사랑을 향유하기만 하고 하늘의 험악한 위엄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이는 참으로 위험한 일인 것이다.

셋째, 事天如親, 즉 하늘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의 사랑을 체득하고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事天如親하게 된다는 것이다. 퇴계는 장재의 《西銘》에 이 도리가 잘 드러나 있으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임금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는 事天의 도리에 대해 궁극적인 것을 말한 것으로, 효자가 부모를 모시듯 해야 한다는 것은 학자가 체득하고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임금이 이를 더욱 절실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임금의 事天之道가 이와 다른 것이 없다”고 하였다. 퇴계는 임금이 하늘을 섬김에 있어 이 도리에 대한 참된 공부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퇴계가 보기에 임금된 사람은 ‘하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야 하고’ 더욱 더 ‘내가 어떻게 하늘을 받들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하여 퇴계는 “전하께서 부모 섬기는 마음을 미루어서 하늘 섬기는 도리를 다해야 하며 항상 반성하고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퇴계는 ‘恐懼修省’을 임금이 하늘

을 섬기는 도리의 기본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를 확대시켜 나가 보편적이자 최고의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최고의 표준이란, 첫째 하늘이 노하였건 아니었건 간에 매사에 정성을 다 하고 효성을 바치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恐懼修省의 마음을 다 바치고 다른 일은 옛처럼 제 멋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이다. 둘째, 태평무사한 시기이건 災異를 당한 시기이건 간에 항상 반성하고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다. 셋째,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건 정치적 조치를 하는 것이건 간에 모두 표리일치의 것이어야 하며 하나같이 誠과 敬을 다하는 것이다.

확실히 퇴계는 ‘恐懼修省’을 應變之道의 근본으로 삼았다. 그는 임금이 덕을 닦아 治世를 이룩하기를 원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동중서의 ‘災異譴告說’을 제시하고 천발하였으며, 敬天, 事天, 畏天의 단계적 논증을 통하여 군주가 ‘修省恐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논지를 귀결시켰다. 여기서 주의할 만한 것은 퇴계가 ‘災異譴告說’을 應變之道의 이론적 기초로 삼았지만 그러나 결코 동중서의 ‘天人感應論’을 그대로 답습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동중서의 학설이 지나치게 구속적이고 천박한 결점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퇴계는 말했다. “동중서, 유향같은 무리들은 어떤 재앙은 어떤 실책의 응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편협하고 어설픈 견해이다. 재앙과 실책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으로 하여금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되고 마니 이것은 틀린 것이다.” 동중서와는 다르게 퇴계는 그러한 단선적인 天人感應論에 구속받지 않았으며 나아가 구체적인 災異를 ‘하늘의 경고’라고 추상화시켰던 것이다. 이리하여 天人不相應의 허구를 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군주로 하여금 항상 반성하고, 항상 두려워하게 하는 더욱 적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퇴계는 “災異가 자기 나라가 아닌 나라의 失政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하여 恐懼修省치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부모가 어떤 자식에게 노하여 꾸지람을 내릴 때 다른 자식이 자기가 잘못된 일이 아니

고 또 자신이 꾸지람 받지 않는다고 하여 안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함께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퇴계는 ‘災異譴告說’을 국가적 개념을 떠나서 천하의 어느 곳에서나 다 통용되는 이론으로 의미를 확대시키면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災異까지도 거울 삼아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퇴계는 확실히 동증서보다 한 차원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퇴계의 天譴論은 동증서의 천인감응과 마찬가지로 ‘天’을 의지를 가진 뿐만 아니라 儒家式의 윤리와 인격을 가진 上帝로 그려 놓았는데, 이는 신학의 목적론적 색채와 종교미신론적 외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비과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에는 임금의 존재는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이른바 君權天授說을 표방하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천명을 위배하지 말고 ‘천자’의 통치에 복종하자는 등의 다분히 군주전제를 옹호하는 의의가 내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퇴계 天譴論의 본의가 임금으로 하여금 克己修德하고 清正廉明하며 內聖外王의 도리를 깨달아 仁政을 실시하고 國泰安民을 이루게 하는 데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군주전제 정치제도에서의 임금은 ‘九五의 尊立’에 있는 至高無上의 절대적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그의 至高無上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다면 ‘天威’와 ‘災異譴告’로써 경고하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군주의 독단과 독재를 제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상제의 위력을 이용하여 군권을 제약하고 災異說을 이용하여 군주로 하여금 반성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바로 퇴계 天譴論의 적극적 의의인 것이다.

## II. 亢龍有悔 居安慮危

퇴계는 禍患에는 그 필연성이 있으며 이는 주관적 바램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禍患이 닥치는 것을 巧智로 피하려 한다고 피할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災禍가 없을 때 재화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재화가 생기면 재화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말했다. “비록 옛날의 聖帝나 明王들도 재화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었다. 다만 재화가 생기기 전에 재화를 부를 일을 하지 않았고, 생긴 다음에는 대응할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이러했을 뿐이다.”라고.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있고 인간세상에는 아침 저녁에도 뒤바뀔 수 있는 禍福이 있다. 자연계와 인간세상의 사건은 모두 우연성과 돌발성이 있다. 그러나 우연 가운데 필연이 배태되어 있고 돌발적인 것도 알고 보면 점진적인 것의 결과이다. 그 관건은 天災와 人禍, 길흉과 禍복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퇴계는 조정에서 侍講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때때로 임금에게 趨吉避凶의 도리와 방책을 알려주었다. 그 가운데서 《周易》에 대한 闡發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도 남음이 있다. 그는 《주역》을 강론하면서 역리를 추연하였다. 그는 “《주역》을 배우면 길흉소장과 진퇴존망의 도리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주역》은 유가 경전 가운데 으뜸으로 여겨져 왔다. 퇴계는 주역의 筮辭를 인용하여 길흉을 예측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變易의 도리를 담은 책의 ‘易理’에 근거하여 治國과 安邦에 필요한 應變지도를 천술하였던 것이다.

《주역》은 음양이라는 두개의 기본범주와 八卦의 형식으로써 자연계와 인류사회 발전의 원인과 변화의 규율을 탐색하고 있다. 우주의 만상은 변화막측한 것이고 인생의 운수도 알기 어려운 것이다. 역학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알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퇴계가 임금에게 《주역》을 강론한 것은 바로 천지와 인생

의 번역의 기본법칙과 규율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길·흉·소멸·생장과 진퇴·존망의 도리를 탐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주역》전체에는 우환의식으로 일관되어 있다. 繫辭에서 말하고 있는 ‘《주역》을 지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걱정하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는 부분을 보아도 그 주지가 우환의식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계사는 ‘그러므로 그 文辭가 위기의식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

퇴계는 《주역》乾卦의 文爻가 龍을 빌어 象으로 삼고 있는 데 주의한다. 용은 변화막측과 숨고 드러나는 것에 일정함이 없는 하나의 상징이며 우주만물의 이치와 인간세상의 변화에 일정함이 없는 상태를 대표하고 있다. 건괘 上九의 ‘亢龍’은 그 지위가 극에 이르러 더 할 수 없이 높은 곳에 있으며 주위를 돌아보아도 망연하기만 한 자리이다. 이미 더 나아갈 곳이 없고 또 내려갈 수도 없으므로 우울하고 고민스러운 것이다. 지위가 지나치게 높으면 후회와 걱정이 반드시 생기는 것은 필연적 추세이다. 이를 추론하면 ‘物은 극에 다다르면 되돌아온다.’ ‘즐거움이 극도에 이르면 슬픔이 생기게 된다’는 도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퇴계가 임금에게 《주역》건괘를 강의할 때 그 중점이 ‘亢龍有悔’에 있었다. 그가 나타내고자 했던 뜻은, 지나치게 존귀하게 되면 安身立命의 지위가 없어지게 되고 지나치게 교만하게 되면 민중의 지지를 잃고 현명한 신하의 보좌까지 잃게 되어 자연히 만사에 후회할 일만 생길 것이라는 데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亢龍之災’를 피할 수 있는 것일까? 퇴계는 “그러므로 옛 현군은 이 도리를 깊이 알아 늘 자기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고 하였다. 《주역》의 원리에 의하면 陰陽·剛柔·強弱·上下·尊卑·雌雄 등이 대립과 통일이라는 양방면의 교감작용을 하여 우주의 만물을 化育 生長시키는 것이다. 대립하는 쌍방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轉化할 수 있는 것이다. 군주가 통치지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知柔知剛’ ‘剛柔相應’의 도리를 알아 ‘剛健中正’하여 中正의 도리에 합치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剛居柔下’ ‘損剛益柔’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군신간의 준비관계를 처리할 때 ‘以貴下賤’ ‘損上益下’의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군주 자신은 겸손한 군자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겸양과 공손으로써 스스로 오만하지 않는 군주는 오히려 백성들의 옹호와 복종을 받게 되는 것이다. 퇴계가 貶仰降屈의 도리를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亢龍有悔’의 명제에 대해 퇴계는 진퇴존망의 도리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진일보적인 闡發을 하였다. 그는 진퇴, 존망, 득실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轉化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편파적인 것에 빠지게 된다. 다만 두 가지를 다 알아야만 정상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퇴계는 “임금의 세력과 지위가 지나치게 높아 만약 進이 극에 달하면 退해야 하며 存이 있으면 亡이 있고 得이 있으면 失도 있다는 도리를 알지 못하면” 이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퇴계는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安危·存亡·治亂의 변증적인 관계를 알아, 안일에 빠지면 망국의 화를 가져 오고, 자만에 빠지면 動亂의 위기가 생긴다는 이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처하는 데는 ‘편안할 때 위험을 대비한다’는 居安思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화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사람은 오랜 안일에서 방만해지는 것이므로 우환의식 속에서는 삶의 길을 열 수 있고, 안락에서는 사망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居安思危하여 갑자기 일어나는 변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바탕하여 퇴계는 ‘治世를 걱정하고 明主에게서 위험을 느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퇴계의 盛世危言 가운데는 사상가로서의 변증법적 광채와 정치가로서의 深謀遠慮가 구현되어 있으며 강렬한 우환의식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消除更化 臻于治平

어떻게 天災와 人禍·內優와 外患에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퇴계는 일련의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戊辰六條疏》에서 갖가지 장애를 물리치고 치국평천하에 이르는 방안 16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퇴계가 임금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구체적 조치이며 퇴계 應變思想의 요점을 선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관점을 여섯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應變 즉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의 근본적인 방안은 임금 본인이 스스로 덕을 닦는 데 있다는 것이다.

둘째, 人心이 화합하면 災異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中正으로써 협조하여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경계하며 양식을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요새를 설치하여 변경을 굳게 지키고 군사력을 길러 국방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상벌을 분명히 하여 잘못된 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언 종 譯)